

“10구단, 야구장 시설-아마야구 아낌없는 투자를”

10구단 시대는 시작됐다

- ① 10구단 시대 가져올 변화들
- ② 10구단 체제 정착을 위한 과제들
- ③ 10구단 매니페스토 =수원-전북의 유치 공약 점검
- ④ 지상토론= 왜 수원인가? 왜 전북인가?

전문가 긴급진단=
10구단 창단, 무엇이 필요한가?

초기 자본만 1000억...즉시 1군 전력 필수 선수수급 위해 학교 야구부 늘리기 우선 야구 흥행몰이 중점...지역 관중 끌어오야

연고지역 인프라 투자 공약 지키기 속도 전력보강 힘써 프로야구 경기 질 높여야

한국프로야구에 새 바람을 몰고 올 제10구단. 2013년 야구계 최대의 화두다. 수원과 손잡은 KT, 전북을 연고로 삼은 부영이 이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스포츠동아는 야구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10구단과 관련해 공통된 질문을 던졌다. '①프로야구 제10구단에 이것(이런 점)만은 꼭 필요하다', '②이것(이런 점)만은 꼭 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영덕 전 OB·삼성·빙그레 감독

①사실 현재 우리 야구 실정으로 보면 10구단이 아니라 9구단도 어렵다고 봤다. 일단 10구단을 창단하기로 결정할 이상, 우리 리틀 야구와 중·고교 야구부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리는 게 우선이다. 일본은 고교 팀만 해도 4000개가 넘지 않는다. 외국인 선수에 의존하지 않고 선수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선수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게 급선무다.

②같은 맥락에서 팬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경기력을 보여선 안 된다. 좋은 자원을 많이 발굴하고 팬들이 야구장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김민식 한국야구위원회(KBO) 기술위원장

①아무래도 선수수급이 가장 큰 문제이니, 기존 구단들이 어떻게 협조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또 새로 출발하는 구단이니, 야구장을 비롯한 시설들에 대한 투자가 잘 이뤄져야 한다.

②차근차근 기본부터 탄탄히 해서 내실을 다져야 한다. 모든 걸 너무 빨리 기존 팀과 똑같이 맞추려고 서두르면, 오히려 실패할 위험성이 더 크다. 여유를 갖고 준비해야 한다.

●하일성 전 KBO 사무총장

①자기 지역의 아마 야구를 얼마나 도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어차피 야구장은



김영덕 전 OB 삼성 빙그레 감독 김민식 KBO 기술위원장 하일성 전 KBO 사무총장 김중현양대 체육대학장 구경백 일구회 사무총장 박종식 선수협 사무총장 양상문 해설위원



10구단의 수원 유치를 희망하는 인사들이 4일 수원야구장에 모여 'KT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식'을 축하하고 있다. 수원 | 김중현 기자 won@donga.com 트위터@beanjin



전북 프로야구 제10구단 범도민 유치추진위원회가 4일 42박스 분량의 '10구단 유치 희망 전북도민 100만인 서명부'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 | 전북도

현대식으로 안 지을 수가 없다. 관중 동원도 어느 수준까지는 저절로 이뤄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아마 야구 육성도 개선이 필요하다. 야구장을 지어야 한다. 막상 되고 난 다음에 오리발을 내미는 일은 피하자. 이행 약속을 확실히 받아야 하고,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김중현 양대 체육대학장 겸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①미시적으로는 경기장 확보가 필요하다. 경기장이 일단 갖춰져야 마케팅 활동이 가

능하다. 거시적으로는 프로야구 전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약속이 필요할 것 같다. 또 10구단이 될 팀은 승률지향적이지 아니라 수익지향적으로 가야 한다. 자립할 수 있는 야구단을 만들어 다른 구단에 새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②지자체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20~30년간 계속해서 공약 이행이 가능했어야 한다. 대한 약속을 해놔야 한다. NC와 창원시의 구장 건립 관련 마찰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구경백 일구회 사무총장

①초기 자금이 1000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다. 특히 프리에이전트(FA)와 외국인 선수 영입 등 선수수급에 돈이 많이 든다. 현재까지 10구단 희망 기업들의 의지를 보면 초기 자금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 1군 진입 전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우리 야구 현실상 선수가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100% 특혜를 줄 수도 없다. 좋은 지도자를 영입하고 좋은 선수들을 키워서 하루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한다.

②의욕적으로 출발해 놓고서는 슬그머니 '시의회의 반대로 국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투자 의욕이 꺾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현재 창원시의 문제로 야구장 사업이 정체돼 있는 상황 아닌가. 기업어드바이저 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창단 때 한 약속을 지켜가야 한다.

●박종식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

①일단 선수협 입장에서 10구단 창단이 선수들의 권익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신인 최저 연봉이 높아져야 하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FA 계약도 기간이나 인원 등 모든 면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군에 가면 연봉이 깎이는 제도도 마찬가지다. 10구단이 이런 면들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

●양상문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

①수원과 전북 모두 프로야구단이 흥행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지역이 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야구부를 일으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한 가지 바람은 나머지 구단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10구단이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력과 수준 차이가 너무 크면 프로야구의 질 자체가 하락할 수 있다. 신생구단은 역시 전력 보강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②단기적인 안목으로 야구단을 운영해선 안 된다. 기업과 지역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야구단을 꾸려가야 할 것이다.

10구단 평가위원 '007 인선' "20명 압축작업 마무리 단계"

지연 학연 크로스 체크...내주 소집

10구단 유치신청서 접수 마감일(7일)이 다가오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인물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치신청 마감일에 맞춰 평가위원을 최종 20인 선으로 확정한다는 방침 아래 비밀리에 압축작업을 진행 중이다.

평가위원으로는 언론계, 학계, 야구인 등 최대한 중립적인 외부인사를 놓고 고르고 있다. KT·수원, 부영·전북의 유치전이 과열양상을 띠고 있어 자칫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상황. KBO 관계자도 그래서인지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위해 압축된 평가위원 후보군을 놓고도 지연과 학연까지 크로스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신청이 마감되면 다음 주 중 곧바로 평가위원회를 소집해 10구단 후보 기업과 연고지역에 대한 심사와 평가에 들어간다. KBO의 설명대로라면, 이르면 다음 주 안에 10구단 유치 후보들의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한 모든 평가 작업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후 KBO 이사회(사장단 모임)와 총회(구단주 모임)도 속전속결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10구단 단일후보를 심의한다. 이사회가 별다른 이견 없이 안건을 통과시키면 곧바로 총회가 소집돼 10구단을 최종 승인한다. 이사회와 총회의 일정 조율이 남아 있지만 이르면 1월 중순, 늦어도 1월 말이면 10구단의 주인이 탄생한다. KBO 양해영 사무총장은 "시간을 오래 끌 이유는 없다. 가늠하면 평가위원회 평가와 이사회 심의, 총회 승인까지 최대한 빨리 끝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부영-전북, 1100억 규모 야구장 신설계획 발표
부영-전북이 4일 총 1100억원이 투입될 국제 규모의 전주 전용야구장 신축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조감도) 전북도는 동시에 170억원 규모의 군산월명야구장 리모델링 계획과 9억7500만원 규모의 익산야구장 개보수 계획도 함께 내놨다. 전주야구장은 월드컵경기장 바로 옆 부지 6만㎡에 세워진다. 공사비 1100억원 중 민간사업자 투자금 500억원은 이미 확보됐고, 나머지 600억원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반씩 부담한다. 전주야구장은 2013년 6월 착공해 2015년 2월 준공된다.

“수원, 정치권 개입 중단하라” 썰난 전북 서포터즈단 성명

10구단 유치를 위해 뛰고 있는 전북 서포터즈단이 4일 "경기·수원 지역 정치권의 개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북 서포터즈단은 경기·수원지역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특별위원이 3일 조찬 회동을 갖고 '인수위 내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아달라', '인수위가 가동되면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경기도 지역 일간지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치권의 개입을 비난했다. 전북 서포터즈단은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요직 인사가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에 적극 관여했다는 정치권 개입의 신호탄이며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있어야 할 10구단 창단 권한을 국회나 인수위원회에서 접수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kh
편집 | 강문규 기자 mkkang@donga.com 트위터 @mkkkang

10구단 유치 '지역 마케팅 플랜'에 달렸다

KBO "평가위에 마케팅 전문가 포함"

프로야구는 700만 관중 시대를 맞이할 정도로 전 국민적인 스포츠로 발돋움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최근까지 장기계획에 따른 성공적 마케팅으로 흥행과 리그 발전을 동시에 이룩했다. 타이틀스폰서와 TV 중계권 계약 등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리그 일정을 정할 때도 마케팅 요소를 포함시키는 등 구단과 리그의 수익구조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다. 10구단 체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KBO, 10구단 창단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요소는 핵심 점검대상 중 하나다.

KBO의 한 관계자는 4일 "기업의 재무구조, 야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방안뿐 아니라 프로야구 흥행과 연고도시에 빠른 안착을 위해 어떤 마케팅 플랜을 갖고 있는지도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위원회에 마케팅 전문가가 포함된다. 학계뿐 아니라 마케팅 전문가들이



2012년 제7차 이사회. 10구단 체제로 확대되더라도 그에 걸맞은 관중 증가 수반될지는 미지수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는 마케팅 요소를 핵심 점검대상으로 삼아 10구단 창단을 심의할 전망이다. 스포츠동아DB

후보 기업이 제시한 플랜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10구단 체제를 반대했던 일부 구단들은 일방적인 양적 팽창에 우려를 표명했다. 8개 구단 체제에서 안정적 성장세를 보였지만, 불과 수년 새 2개 구단이 늘어나면 급격한 팽창으로 인해 경기력은 물론 팬들의 관심마저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9·10구단뿐 아니라 기존 구단들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요소라는 지적이 었다.

10구단 체제가 정착되기 위해선 새롭게 리그에 가세하는 구단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프로야구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경기장으로 팬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

10구단 후보 기업과 지자체는 지역 인구 수를 언급하며 흥행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수는 흥행의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 잠재된 고객들이 경기장을 찾아 경기도 보고 구단 관련 상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수원-KT와 부영-전북이 10구단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평가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마케팅 플랜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제시하는 쪽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최용석 기자 gyong@donga.com 트위터 @gyong11

김광현 1000만원 삭감...연봉 2억4000만원도 장

SK는 4일 김광현(사진)과 지난해보다 1000만원(4%) 삭감된 2억4000만원에 올해 연봉 재계약을 했다. 김광현은 2011년 2억7000만원으로 역대 5년 차 최고 연봉 타이 기록을 세웠으나, 이후 부상 등이 겹쳐 2년 연속 연봉 삭감을 맞았다. 이밖에 SK는 채병용과 1억6000만원 동결에 재계약했고, 윤길현(1억2000만원) 박재상(1억4000만원) 안치용(7500만원) 이재영(1억2000만원) 엄정욱(1억원)과도 협상을 마쳤다.

LG, 용병 주키치-리츠와 37만5000달러 재계약

LG가 4일 외국인투수 벤자민 주키치, 레다메스 리츠와 재계약했다. 좌완 주키치와 우완 리츠 모두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27만5000달러 등 총액 37만5000달러에 재계약했다. 지난 시즌 주키치는 11승8패 방어율 3.45, 리츠는 5승12패5세이브 방어율 3.69를 각각 기록했다.

"류현진, 올시즌 다저스 유망주 평가 20명 중 5위"

LA 다저스 류현진이 올 시즌 다저스 유망주 20인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5위에 올랐다. 미국 스포츠전문지 SB네이션의 야구전문기자 존 시켈스는 저서 '야구 유망주 소개서 2013'에서 류현진을 평점 B-에 5위로 평가했다. 시켈스는 "체인업을 잘 던지고 삼진도 많이 잡는다고 다들 말하나 종합적 평가는 평균에서 평균 이상까지"라고 설명했다.